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 개혁 방법

(James Kennedy, T. M. Moore 저/ 채수범 역/ 나침반 간/ 1989)

이재율

이 책은 철저하게 복음주의적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서들이 최근 꾸준히 출간되어 오고 있지만,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단순히 개인적 혹은 교회적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고 사회와 역사,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크게 각성시키고자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사회적 관심이 결여되어 있었고, 반면에 일부는 자본론에 기초한 사회변혁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그 결과는 참담하였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가 당면

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해 나갈 원리의 기초를 성경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저자들은 미국의 상황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상황에도 적용되거나 풍부한 함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이 책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 부분으로 크게 묶어 볼 수 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기독교적 사회개혁의 기본원리를 다루고 있다. 그것은 성경의 절대적 진리성에 대한 확신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5장부터 10장까지는 성경의 원리를 각부분에 적용한 구체적인 사회개혁의 실패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가정의 변화, 경제적 영역의 변화, 정치상의 변화, 교육의 변화, 직업의 변화, 교회의 변화 등을 다루고 있다. 11장과 12장은, 변혁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기도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을 잘 따름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끝맺고 있다. 먼저 그 내용을 장별로 더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1장 ‘이 시대를 위하여’에서 저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역사의 흐름을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남녀, 어거스틴, 칼빈과 루터, 솔제니친, 그리고 이름없이 신앙의 고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런 다음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가라는 강한 도전을 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음의 두 길 밖에 없다: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떠내려 갈 것인가? 두 길 외에 세상으로부터 초연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저자들은 그것은 세상에 떠내려가는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예로서 위기에 처한 동족을 살리고자 목숨을 건 용기있는 행동을 한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든다. 오늘 우리의 세계는 커다란 변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가정의 파괴,

교육의 실패, 각종의 사회적 불의와 부패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그리스도인이 사회개혁을 위해 나서야 하는데 문제는 이들을 움직이도록 동기부여하고 방향을 잡아줄 정예부대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숫자는 한국의 경우 대략 10만 명이 된다고 한다. 10만 명의 정예대원이 있으면 이들이 1000만 명의 한국기독교인들을 움직여 한국사회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0만명의 세계변혁자의 양성이 시급한데 오늘의 교회는 성공신학,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으니 정말 큰일이라고 저자들은 말한다. 우리에게는 회생을 치를 용기를 주는 생산적인 신앙이 요청된다.

2장 ‘우리가 서야 할 토대’에서는 세계변혁의 토대는 바로 성경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 토대가 국부론이나 자본론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다. 성경은 그 자체의 위대한 사상과 역사적 진실성, 그리고 증언자들의 목숨을 건 증언에 의해 그 확실성이 입증되고 있다. 저자들은 성경을 토대로 삼는다는 것의 의미를 말씀을 더 깊이 접하고, 그것에 의해 삶이 지배되고, 모든 사물을 성경적 시각으로 볼 줄 알게 되고, 성경적 세계관과 인생관의 우월성을 선포하고 변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3장 ‘변화받은 나라를 위한 변화받은 마음’에서는 세계변혁 과업의 시작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많은 개혁론, 혁명론은 제도와 체제의 변화를 위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인격 중심의 변화가 없이는 어떤 지속적인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내적변화는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세계변혁은 복음 전파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복음을 능력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리 이웃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그들의 생각, 삶, 필요, 문제 등을 이해할 때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의 예를 들면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보다 그들을 긍정하면서, 그리고 그들과의 공통적인 접촉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장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은 없다’에서는 세계변혁 과정에 나타날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력의 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 놓은 위대한 승리의 의미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불신앙이라고 하고 이것을 확신할 때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네 가지 장애물에 대해 언급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바로 나 자신을 통해 세계변혁의 과업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신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쓰고자 하신다. 둘째,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의 부족에서 생기는 것이다. 셋째, 시간이 없다고 핑계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혼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우리의 눈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시킴으로써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5장 ‘가정을 변화시키는 문제에 대하여’에서는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에게 큰 영향을 미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부모들이 어떤 본을 보이고 어떠한 방향의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지 배울 수 있다. 겸손, 의, 근면, 사려, 친절, 경건, 가정의 중요성 등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자녀들은 미래의 세계변혁자들이다.

6장 ‘변화된 세계의 경제학’에서는 부와 소득을 포함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시간, 재능, 기회, 인간관계 등)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세상의 경제학은 이 자원을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또는 자기의 욕망의 충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학은 이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도로 실현할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경제학에 몇 가지 원리가 있다. 첫째,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둘째,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문화명령과 복음명령으로 요약된다. 우리의 모든 자원은 이 두 명령을 최대한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자원의 사용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회계를 하여 상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7장 ‘하나님, 정부, 자유’는 정부의 권위의 근거와 정부활동의 범위에 대해 논하고 있다. 성경은 권력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역할은 악을 제어하고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한다. 저자는 개인의 자유와 기독교의 국교화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미국적 상황에 독특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하여간 그리스도인은 정부의 활동이 성경적 원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참여하고, 협조하며, 때로는 저항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8장 ‘진리의 수호자들’은 교육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학교교육과 교회교육을 포괄하고 있다. 교육의 목표는 삶의 변화이어야 하고, 교육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9장 ‘당신의 동산은 어떠한가?’는 우리의 일, 직업, 노동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일은 필요악 혹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문화창조의 사명이다.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사업에 참여한다. 일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는 일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운다. 우리는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 우리는 소득을 얻는 일뿐만 아니라 무보수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제도들, 즉 가정, 직장, 국가, 교회, 교육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화명령과 복음명령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0장 ‘하나됨을 위한 부르심’에서는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의 하나됨, 형제의 사랑, 연합이 요청된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연합해야 한다. 이것은 개교회내 뿐만 아니라 교회간, 각종의 기독교단체, 심

지어 국제적으로도 연합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더 강조함으로써, 지역에 협동함으로써, 하나로 되어 갈 수 있다.

11장 '나라이 임하옵시며'에서는 세계변혁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기도임을 밝히고 있다. 인간의 모든 노력, 계획이 비록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기원하고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무엇 하나도 이룰 수 없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칠 때 성공할 수 있다. 기도의 전형은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이다.

12장 '영광으로 영광에'에서는 우리가 세계변혁자로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며 예수님이 친히 그 모범이 되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의 방부제가 되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을 부여하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가르침을 온 족속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하셨다. 참으로 예수님 만큼 이 세상을 변화시킨 분이 어디에 있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고,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뛰어난 교육가로, 노동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세계변혁자의 전형을 보여 주셨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음으로써 우리는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다.

이상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저자들의 주장을 소개한 것은 내용 자체가 매우 좋고 공감이가 가기 때문에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이 책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생각해 보자.

첫째, 이 책은 보수적 교단의 목회자들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 있다. 이들은 복음전도에만 열심을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목회에 성공하여 출세하고자 하는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목회자들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대의에 헌신할 것을 이 책은 요청한다.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의 성장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역사의 변혁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여야 하고 그런 방향에서 목회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책은 잘못된 교회교육을 받고 극히 물질주의적이고 향락적인 세속의 영향을 받아 종교를 단지 자신의 구원과 마음의 평화, 복의 도구로만 간주

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 속에 잠자는 한국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한 내적 혁명과 이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 잠에서 깨어야 할 때임을 저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셋째, 이 책은 일부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개혁노선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사회개혁은 결코 정치적, 제도적 변화로만 성공할 수 없으며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도적 개혁은 복음을 통한 인간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어 추진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넷째, 저자들은 사회변혁의 결정적인 요인은 각성된 10만의 정예부대의 양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정말로 이러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데 가장 우선적인 중요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엄청난 규모로 호화스럽게 짓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길러내는데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야 한다. 이것만이 한국교회가 갱생하는 길이요 한국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 길임을 저자들과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다.

이 책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미흡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약간 있다. 예컨대 저자들은 정치의 목적에서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기독교를 거의 국교의 위치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점에서는 평자의 견해는 좀 다르며 한국의 경우에는 더욱 적실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교육을 다루는 데서 일반교육의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교회교육에만 국한한 것도 아쉬운 점을 남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평자는 거의 전적으로 저자들의 견해에 공감을 느끼며 그리스도인들이 일독하여 많은 유익을 얻기를 바라는 바이다.